

# 목포 대양산단 첫 삽... 자족형 도시 도약 기틀

대양동 일대 156만㎡ 2909억 투입 2015년 완공

경제유발 효과 5000억·고용 효과 1만여명 기대

목포시가 자족형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기틀이 될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가 지난 5일 첫삽을 뒀다.

목포시는 이날 오후 산단조성 사업 부지인 노죽동 마을회관 앞에서 정종득 시장과 박지원 국회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대양동 일대 156만㎡(약 47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대양산단은 2909억원이 투입되며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1월 포스코 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과 주주 및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월 특수

목적법인 목포대양산단(주)을 설립했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65%의 토지보상 성과를 올리고 있다.

목포대양산단은 목포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무안국제공항 등 SOC망이 잘 갖춰져 물류비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 곳에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수산식품, 해양레저 장비 산업관련 공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또 인건비, 공사비, 금융비 등의 절감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분할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이 조성되면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종득 시장은 "대양산단은 목포시가 서남권 자족형 경제중심도시로

급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전남 택시요금 큰 폭 인상

10일 목포 18.5%, 12일 나주 16.7% 올라

전남지역 택시요금이 4년여만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달 1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인상 기준안(18.5%)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10일부터 택시요금을 18.5% 올리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LP가스 가격, 인건비, 소비자 물가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등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요금은 종전 2km 기본요금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거리요금은 164m당 100원에서 146m당 100원이다. 시간요금은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나주시도 4년만에 12일부터 택시요금을 1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km까지 기본 요금이 2500원에서 3000원, 거리요금은 164m당 160원에서 146m당 160원 오른다. 시간요금도 39초당 160원에서 35초당 160원으로 조정했으며 복합할증율, 심야할증(0시~4시), 호출요금(1000원/1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나주=손영철기자 ykson@

## 무안군 '이동 군수실' 재가동

선거법 논란 중단 한달여 만에

무안군이 선거법 논란으로 중단했던 '이동 군수실'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운영한다.

무안군은 지난 5일 삼향면 남약출장소에서 이동 군수실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을 청취했다.

이동 군수실은 지난 2월 15일 한차례 운영한 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

무안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이날 재개했다.

무안군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남약출장소에서 김철주 군수가 지역민들의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할 계획이다.

무안군이 이동 군수실을 열기로 한 것은 남약신도시가 전남도청 이전으로 신도시가 형성된 후 군 전체의 27%에 달하는 2만1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데다 군청과의 접근성 애로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신도시 공공시설물 등을 군이 인수한 이후 청소, 교통, 소음, 지반침하 등 다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군내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 군수실 운영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완도 장보고 기념관

유물 전시 등 특별전

완도 장보고 기념관이 '세계의 해양 영웅'이란 주제의 특별전을 연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3개월간 세계 해양 영웅들의 유물 30여 점과 20여 개의 패넌을 설치, 영웅들을 소개한다.

특별전에는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 소탕과 동북아 해양 무역을 경영한 장보고를 비롯한 이순신 장군, 콜럼버스, 마젤란 등 세계 해양영웅의 자료가 전시된다.

해상을 토대로 이뤄진 역사, 문화, 해양 영웅들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청상노 슬로루 경기축제, 장보고 축제,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기념으로 특별전을 마련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모습.

## 해남서 '오페라 갈라 콘서트'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18일 오후 7시 30분

비제의 카르멘 등 다양한 장르 음악 선봬

해남군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해남문화예술회관 개관 11주년 기념공연으로 '오페라 갈라(Opera Gala)'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 이래 처음으로 해남을 찾는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통해 아름다운 오페라 음악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성악가가 참여해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라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트라비아타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귀에 익숙한 이태리 독일 등 외국가곡, 한국가곡, 뮤지컬 인기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13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돼 공연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공연 관람권은 오는 12일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오페라를 불후의 명곡에 얹힌 뒷이야기와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을 곁들여 감상할 수 있다"며 "60명에 이르는 가수가 출연하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에 개관한 해남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최근 몇 년간 매 공연마다 전화 매진기록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도내 화장문화 급속 확산

시·군 화장률 61%...봉안당 등 인프라 확충 영향

전북도의 화장률이 61%를 넘어서는 등 화장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화장률이 61%를 기록, 전년도인 2010년도보다 3.97%포인트 상승했다.

2006년 42.4%에 머물던 화장률이 2009년에는 54.1%로 올라서더니 2011년에는 60%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화장률이 오른 이유는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등 시민의식이 변화한데다 매장 부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화장률이 제일 높은 곳은 군산시(77.8%)였고 낮은 지역은 순창군(39.9%)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화장률이 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 지역의 화장시설 및 화장 유급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등 인프라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매장 공간이 부족한 서부평야지역과 기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큰 정읍·고창·김제·부안 등 동부권에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내 화장시설은 전주와 군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등 시민의식이 변화한데다 매장 부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화장률이 제일 높은 곳은 군산시(77.8%)였고 낮은 지역은 순창군(39.9%)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화장률이 군 지역보다

## 전북 사계절 관광지 남원, 숙박 관광객 급증

전통문화 체험 등 이벤트 효과 올 10만명 육박

내달 춘향제·바래봉 철쭉제...방문객 크게 늘듯

사계절 관광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남원시의 숙박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남원시는 3월 말까지 남원을 찾은 숙박 관광객은 9만85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숙박 관광객의 증가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를 비롯해 봄꽃 여행상품 판매,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국 180개 대학 5만여명의 대학생이 남원에서 실시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이 큰 힘이 됐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펼치는 신관 사포 부임행차 관광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표축제인 춘향제와 바래봉 철쭉제가 다음 달 개최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단이 본격적으로 방문하고 순천정원박물관 연계상품이 출시되면 숙박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시는 숙박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관광무원 특설무대에서 '가인 춘향전' 행사를 펼친다.

장주호 문화관광 과장은 "지리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숙박업계의 관광객 유치전략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남원을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도록 관광기반 시설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전북지사 "서남대 폐교 안된다"

교육부장관에 관선이사 파견 정상화 요구

김완주 전북지사가 지난 5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남대학교 폐교 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정상화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동원·유성열·김윤덕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하고 서남대의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서남대가 있는 전북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된 낙후지역으로 균형 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고 강조하고 "대학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

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폐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 학교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서남대는 2013년도 신입생이 69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데다 현재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25일 '무장음성 축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및 무장음성축제'가 오는 25일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과 무장면 무장음성 일대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음성 무혈입성을 기리기 위한 미려한 이번 행사는 혁명군 진격로 걷기, 무혈입성 재연, 기념식 등으로 구성된다.

(고창군 제공)

## 단신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10일 개최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10일 오후 1시 군산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군산시, 전북도, 군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20여 곳이 참여한다.

취업·부대행사·취업지원·이벤트 관 등이 운영되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직성검사, 이미지컨설팅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

다.

기업체 50여 곳이 참여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http://job2013.kr/)도 함께 진행된다.

조경수 군산시 투자지원과장은 "산·학·관이 협력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구직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유등면 섬진강 꽃길조성 관광객 손길

순창군 유등면 섬진강 하천변이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순창군 유등면은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 2일 유등면민회 등 각 기관단체와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여해 섬진강 하천변에 철쭉 1만

1000주를 심었다.

특히 유등면 외이마을 출신 향우 운영수(37)씨가 1만1000주의 철쭉(2000만원 상당)을 기증했고, 유등면 민회에서는 꽃길조성 기반시설에 필요한 300만원을 지원해 훈훈함을 더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세계소리축제 참가팀 공모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소리 프린지'와 '나도야 소리' 참가팀을 공모한다.

축제 속의 축제 '소리프린지'는 월드뮤직과 퓨전국악, 인디밴드, 힙합, 재즈,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대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아마추어 소리 경연대회 '나도야 소

리꾼'도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2013jisf@naver.com)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63-232-8398)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녹두대상 수상자 '동학농민혁명100년' 집필진 선정

고창군은 제6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전북일보가 발간한 '동학농민혁명 100년' 집필진(김은정 문경민 김원용 씨)을 선정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08년부터 동학농민혁명(1894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녹두대상을 주고 있다.

집필진은 전북일보 특별취재팀원으로서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993년부터 2년간 혁명의 핵심지였던 도내에서 갑오년 역사의 숨결을 찾고 오늘날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신문에 실었다.

/\*고창=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